

맑스와 라살레

-맑스와 라살레의 가치론의 차이-*

朴 榮 浩**

논문초록

이 글은 맑스와 라살레 간의 가치이론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다뤘다. 따라서 두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상이한 내용과 논리적 구조를 맑스주의적 입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했다. 먼저 맑스 가치론에 대한 라살레의 기본적 차이가 어디에서 연유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데서부터 출발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의 개념 파악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봤다. 라살레는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개념도 맑스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가치형성과 자본형성의 실질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라살레가 맑스의 가치론을 오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가치형성적인 노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의 차이에 있었다. 노동의 이중성에 대한 간과와 함께 라살레는 가치를 형성하는 본질의 성격도 오해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라살레는 자신이 맑스의 가치론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핵심 주제어: 노동소득, 잉여가치, 사회적 필요노동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3, B4

*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e-mail: yhpark@hanshin.ac.kr

I. 서 론

맑스는 엥겔스와 함께 1848년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고, 그 뒤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을 거쳐 1867년 『자본론』 제1권을 출판함으로써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이론을 완성했다.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가치이론-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맑스의 가치이론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오해되고 왜곡되면서-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정주의논쟁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별로 학계에서 논의된 바가 없었다.

자본주의적 상품경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맑스의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맑스와 라살레간의 가치론에 대한 차이를 밝혀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859년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이 출판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맑스 가치론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피하지 못했다.

맑스는 자신의 가치론에 대한 라살레의 오해와 왜곡이 독일 사민당과 노동자들에게 미친 막대한 영향 때문에 라살레가 사망한 이후 1875년 고타강령비판을 통해 다시 한번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잉여가치론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에서 가치계산에 대한 자신의 차별적이고 분배적인 형태를 제시하면서 라살레의 노동소득이론을 비판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잉여가치론에 대한 강조가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서 맑스와 라살레간의 가장 중요한 논쟁중의 하나로 부상했다.

맑스의 추상적이고 사회적 성격을 지닌 잉여가치론과 노동가치론이 1867년 『자본론』 1권을 통해 발표된 이래 『자본론』 2권과 3권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이고 분배적인 가치계산보다 독일 노동운동과 사민당 강령에서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도 여기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가 있다. 라살레가 맑스의 잉여가치론을 오해하고 왜곡한데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독일 사민당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개념에 있어서나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비판에 있어서 커다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맑스의 가치론을 『정치경제학 비판』을 통해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그것의 열렬한 추종자이기도 했던 독일 사민당의 창시자¹⁾ 라살레의 경우를 통

1) 라살레가 창시한 “독일일반노동자연맹(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은 아직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사민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조직

해서 맑스 가치론의 수용과 이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보고자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가치론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I.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의미

1857년에 발발한 경제공황은 맑스에게 자신의 경제이론에 대한 확신 감을 주었기 때문에 독일과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에게 프롤레타리아의 경제학, 말하자면 사회주의의 이론적 근거와 정당화를 제시하는 대작을 출판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계획은 1859년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드디어 1859년 맑스는 『정치경제학 비판(*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이라는 제목하의 전집 중 최초 소책자의 1장과 2장을 출판했다. 그러나 이 소책자는 아직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사용할 만한, 노동자계급을 위한 경제학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었다. 최초로 경제문제를 다룬 이 소책자는 상품에 대한 추상적 분석과 화폐의 범주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었지만 원래 목적이 프루동Proudhon과의 논쟁에 있었다. 맑스는 특히 그의 화폐이론과 은행개혁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자 했다.

맑스는 1850년대에 그가 집중했던 경제학 연구결과를 종합할 결심을 한 뒤 1857년 8월과 9월에 “정치경제학 비판서문”(Einleit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을 작성했고 1857년 10월과 1858년 3월 사이에 거의 1000페이지짜리 책이 될 수 있는 개괄적인 원고를 마무리해서 『정치경제학 비판 개요 또는 초고(*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bzw. Rohentwurf*)』라는 제목을 붙이고자 했던 것이다.²⁾ 맑스는 이 원고를 정치경제학에 대한 포괄적 작품을 쓰기 위한 초고로 생각했는데 『자본론』에 대한 최초의 틀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원고에는 맑스

의 결성일인 1863년 5월23일을 독일사민당의 창당일로 본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일사민당의 창시자를 라살레로 보고 있다.

2) 맑스가 1857년 12월 8일과 18일, 1858년 11월 29일에 엥겔스에 보낸 편지와 1857년 12월 21일, 1858년 2월 22일에 라살레에게 보낸 편지에 그와 같은 맑스의 뜻이 들어 있음. MEW. Bd. 29 pp. . 222, 232, 372, 548, 551에 수록되어 있음.

주의 가치론의 기본형태가 되고 있는 노동잠재력³⁾과 잉여가치론의 발전된 형태가 발전된다.

『개요』의 원고에는 아직 상품에 대한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1858년 말 그의 전 작품 중 제1권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장을 새롭게 작업을 했다. 즉 원래 화폐에 관한 장과 함께 자본에 관한 제1권(Vom Kapital)에 우선적으로 집어넣고자 했던 상품에 관한 장이 『개요』 속에는 아직 별도의 장으로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1858년 말부터 1859년 초에 상품에 관한 작업을 완전히 새롭게 진행시켰고 그 결과를 화폐에 관한 장과 함께 2장으로 해서 그의 경제학 총서의 “최초의 소책자”(Erstes Heft)를 1859년에 『정치경제학 비판(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라살레는 이 책을 통해서 맑스의 정치경제학이론, 특히 가치론을 자기방식에 따라 수용했으며 연설문과 강연의 이론적 토대로 삼았다.

이 소책자에는 맑스가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유물론에 대해 고전적 해석을 하고 있는 유명한 서문과 함께 두개의 장이 실려 있는데⁴⁾ 여기에는 가치법칙에 의해 결정된 상품생산의 경제적 기본관계에 대한 유물변증법적 분석이 들어 있다. 특히 상품의 이중성격에 관한 분석과 이중성격에 근거한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의 분석, 즉 가치의 실체로서 추상적 노동의 분석이 들어 있으며 화폐의 본질과 기능에 관한 분석도 들어 있다. 특히 이 두개의 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맑스가 고전적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의 가치파악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면서 창조한 노동 가치이론을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정치경제학의 총 체계에 있어서 이론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Ⅲ. 라살레의 노동소득(Arbeitsertrag)이론과 맑스의 비판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소유자가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은 잉여가치가 존재한다는 것과 이 잉여가치가 착취라는 생각은 19세기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이미 자본주의 비판의 기초였다. 이러한 입장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선동의 결정적 관

3) 자본론에서 노동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됨.

4) 1장은 Die Ware(상품), 2장은 Das Geld oder die einfache Zirkulation(화폐 혹은 단순유통)으로 되어 있음.

점이었고 라살레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라살레는 타고난 감동적인 연설가였으며 1862년부터 독일에서의 정치적 논쟁에서 사회주의의 대표주자였다.

그의 이론적 입장은 소위 리카도의 임금철회설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수요공급의 법칙에 근거한 임금철회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항상 생활필수품만 남고 노동자들이 생산한 그 이상의 부분은 항상 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Jenacek (1970, p. 183) 생산된 노동소득에서 먼저 기업가를 위한 부분을 충분히 공제하고 나머지부분이 노동임금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데 결국 노동소득 생산 중에서 잉여전체가 기업가의 몫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Jenacek (1970, p. 182) 기업가에 대한 노동자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분석한 라살레는 노동자를 기업가로 만들어 그들이 전체 노동소득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자계층(Arbeiterstand)을 자신들의 기업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동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철회를 극복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 것이다. 노동자계층이 기업을 설립하고 그 기업의 주인(기업가)이 되면 노동임금과 기업가이윤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고 노동임금(Arbeitslohn) 대신에 노동소득(Arbeitssertrag)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다. (Jenacek (1970, p. 188)

따라서 라살레는 자유로운 협동조합에서 노동자계층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을 찾고자 했다. 사회적 자기구제의 형태로서 협동조합은 국가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고 장려돼야 한다. 노동자들은 충분한 자본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살레에게 이와 같은 지원은 국가의 도덕적 의무였다.

그러나 당시 자본주의국가로부터 협동조합은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보통, 직접선거권이 쟁취돼야 국가는 국민국가가 될 수 있고 노동계급 대다수의 거대한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국민국가, 다시 말해 총체적 협동조합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회적 자기구제조직인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을 창업자금과 보증자본을 통해 도와 줄 수 있는 것이다.

라살레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던 당시(1862년/63년) 런던에 거주하고 있었던 맑스 보다 훨씬 독일노동자층에 영향력이 컸다. 맑스의 정치경제학이론은 당시 노동자조합들에게는 실제로 잘 알려져 있지 못했지만 라살레의 연설과 글들은 널리 퍼져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독일노동운동에서 사회주의의 이론적 근거는 맑스의 가치이

론이 아니고 라살레의 노동소득에 대한 주장이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Mehring (1960, Bd. 2, p. 290)

맑스와 라살레간의 논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말한다면 독일노동운동에서의 라살레의 견해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살레는 충분한 연구에 기초한 철저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도 없이 노동자선동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과 강연을 통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들을 즉흥적으로 (ad hoc) 내놓았고 그 내용들은 곧바로 확산돼 나갔다. 라살레는 여러 차례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 작업 계획을 세우긴 했으나 한번도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의 저작으로는 국민경제적 강연들에 쓰인 단편적인 논문들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나 라살레는 Schulze-Delitzsch의 경제이론에 대한 비판적 소책자⁵⁾로 촉발된 논쟁과정을 통해 노동자계층에서 확고한 지위를 획득했다. 그는 맑스주의적 의미의 사회주의적이라기보다는 개량적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적인 노동자계층의 입장을 취했다.

1863년5월23일 독일일반노동자연맹 (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 ADAV)이 라살레의 복안에 따라서 창설되는데 맑스는 1865년까지 ADAV의 당원이었다. 이 연맹은 점차적으로 최초로 조직된 정치적 대중정당으로 발전해갔다. 라살레는 공개서한을 통해 당의 강령을 명시했다: 보통, 직접선거권의 도입을 위해서 합법적

5) Ferdinand Lassalle (1825. 4. 13-1864. 8. 31)는 1864년에 국민경제학적 논쟁집 *Herr Bastiat-Schulze von Delitzsch, der ökonomische Julian, oder Capital und Arbeit*를 출간했고, 이 책에서 그는 노동자 자립을 주장하는 Hermann Schulze-Delitzsch와 프랑크 자유주의경제학자 Frédéric Bastiat의 전체 자본주의경제학을 비난했다. *Der ökonomische Julian*이라는 부제가 말하듯이 Schulze-Delitzsch나 Bastiat는 문학비평가 Julian Schmidt가 문학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처럼 경제학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비판을 했다. 왜냐면 이들은 기업가 이윤도 임금이라고, 즉 절약에 대한 보상성 임금, 욕심을 억제하는 것에 대한 보상임금이라는 주장을 폈다. 라살레는 이에 대해 “그들은 전혀 우리 프롤레타리아계급이 창조해낸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자본가들이라니! 자본소득과 노동임금 모두가 다 동일한 것이라니! 밤중에는 모든 고양이 색깔이 회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들의 우둔한 감각 속에서는 모든 경제적 차이가 다 사라져 버린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이 책은 라살레가 분명히 밝혔듯이 맑스의 1859년 『정치경제학 비판』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에 근거해서 쓴 것이었다. 이 책의 주요내용들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라살레의 경제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베른슈타인이 편집한 “라살레의 연설문과 서한집”에는 이 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거기서 인용된 부분들은 대부분 이 책에 수록된 내용임. 그리고 제나책크가 편집한 “라살레의 연설문과 서한집”에서는 노동자강령 속에 들어 있는 부분이 인용된 것임.

이고 평화적인 그러나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는 선동의 목적을 갖는 전독일 일반노동자연맹을 조직하라. (Jenaczek (1970, p. 200) 이러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입장과 함께 라살레의 “완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슬로건은 독일 노동자운동의 상식이 됐다. 운동의 전략은 라살레적 노동소득론에 근거해 있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독일 사회민주주의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남아있었다.

맑스와 라살레는 오랜 우정을 키워온 사이였다. 그러나 ADAV의 창당 이래 우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경쟁상대가 됐다. 맑스는 독일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지도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라살레가 독일에서는 실질적으로 노동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투쟁이 강화됐다.

맑스는 라살레의 『노동자강령』이 자신이 만든 『공산당선언』의 저질적인 속류화라고 혹평을 했다.⁶⁾ 뿐만 아니라 『자본론』 제1권 서문에서 맑스는 라살레의 Schulze-Delitzsch에 대한 비판글이 자신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표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Marx Engels Werke (1978, Bd. 23, p. 11)

1859년까지 맑스는 라살레와 자신이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⁷⁾

독일에서 ADAV가 건설되던 1862년/63년은 맑스가 기존의 잉여가치론들에 대한 학설사적 고찰을 막 끝낸 때였다.

앞서 밝힌 대로 독일 노동운동과정에서는 라살레의 이론과 논증이 지배적이었다. 그의 초보적인 경제 분석 강연들이 독일 일반노동자연맹에 퍼져있었고 노동소득과 임금에 대한 그의 이론이 독일일반노동자연맹과 그것의 발전적 해체를 통해 고타에서 새롭게 건설된 독일 사회주의노동자당 (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의 과학적 예비지식이었다.

1864년 라살레가 세상을 떠난 3년 뒤인 1867년 맑스는 드디어 『자본론』 제1권을 출판했다. 이 책은 추상적인 가치이론에 근거한 자본 일반의 생산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그런데 이 책에 서술돼 있는 사회적이고 추상적인 노동가치이론과 잉여가치이론은 대중적인 형태로만 보면 라살레의 “완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슬로건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론』 1권에 있는 가치공식인 $W=c+v$

6) 1863년1월28일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에서, Marx, K./Engels, F.: *Briefwechsel zwischen Marx und Engels, Jan. 1860 bis Sept. 1864*, MEW, Bd. p. 30,

7) 1859년2월25일 엥겔스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에서

$v+m$ 은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면 착취와 완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라살레의 주장을 이론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맑스나 엥겔스의 입장에서 보면 라살레의 주장은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노동소득이론을 주장하는 라살레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비판하지만 그것의 기본인 잉여가치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 주장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중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맑스의 가치론과 분배론에 심오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맑스의 분배론적 견해는 그의 차별화된 가치계산에 근거하고 있지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론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자본론』 제1권에는 가치의 분배론적 고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 요강』에서 최초로 초안을 잡았을 뿐이고 자본의 유통과정을 연구한 자본론 2권에 구체적인 자본의 분석범위 속에서 가치론의 차별화가 초안으로 포함되었지만 이는 맑스 생전에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살레 이론과 완전히 차이가 있는 그의 차별화된 가치론은 당시 라살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가 없었다. 따라서 맑스와 라살레 간의 논쟁은 가치이론과 잉여가치분배에서 주로 발생했다. 맑스는 임금투쟁을 통해서 임금제도의 해체가 가능하다고 본 반면, 라살레는 보통, 자유, 평등한 선거권과 국가원조를 통해 완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봤다.

라살레의 가치이론과 임금이론에 대한 비판은 고타강령에서 임금제도와 함께 지양되도록 돼있는 임금철폐에 대한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맑스 자신도 비록 장기적으로는 노동자 임금이 더 높아 질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라살레류의 임금철폐설은 거부하고 있다. 맑스는 “.....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노동자의 상태는 악화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부가 커지고, 기능하는 자본이 많아지고, 자본성장의 범위와 힘이 커지고,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절대적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노동생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업예비군의 규모도 커진다..... 결국 산업예비군이 많아질수록 공식적인 사회적 빈곤도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Marx Engels Werke (1978, Bd. 23, p.675))

맑스는 라살레의 노동소득의 정당한 분배(Gerechte Verteilung des Arbeiterertrages)라는 분배개념을 반박했다. 노동소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소득

의 정당한 분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Marx(1875, p. 18)

완전한 노동소득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분배되는 조합주의적 경제방식에서 이 권리는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맑스는 조합주의적 상품경제의 전제조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회가 비자본주의적 생산사회인 동시에 아직 노동 분업적인 상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적 과도사회라고 전제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공동으로 창출한 가치, 즉 노동소득의 완전한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물었다.

맑스는 사회적 총생산물로부터 출발한다. 이 총생산물로부터, 즉 노동소득으로부터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것들이 먼저 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노동소득이라는 말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조합주의적 노동소득은 사회적 총생산물을 의미한다.

거기에서 공제돼야 할 것들을 보면:

첫째: 사용된 생산수단의 보충분(감가상각비)

둘째: 생산확장을 위한 추가부분

셋째: 사내유보기금과 자연재해, 고장, 실패에 대비한 보험기금

이상의 공제는 생산재부문의 재생산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공제의 크기는 기존의 수단들과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부분적으로는 확률계산에 의해서 결정 되는 것이지 절대로 공정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소비재부분이 남아 있다.

개별적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공제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일반적이지만 직접생산에 속하지 않는 행정비용. 이 부분은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축소될 수 있다.

둘째: 욕망의 공동충족에 사용되는 부분, 즉 학교, 의료시설 등. 이 부분은 새로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실업기금, 빈민구제기금 등.

이 같은 공제가 이뤄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개별적 분배가 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라살레가 말한 완전한 총 노동소득은 이미 감축된 노동소득으로 전환된다. (Marx(1875, pp. 18-19)

근대적인 계산방식으로 보면 총소득계산과 순소득계산의 기초위에서 이 가치계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맑스가 자신의 추상적 노동가치론과 다

르게 주어진 총생산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용계산과 분배계산에 관한 맑스의 설명들은 그가 전적으로 추상적인 가치계산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품경제적 재생산조건하에서는 경영학적 비용계산에 대한 자세한 언급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실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맑스는 분배는 라살레 추종자들이나 초기사회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추상적 공정성척도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타강령비판에서 그는 “동등한 권리는 불평등한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권리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Marx(1875, p.21) 여기서 그는 평균노동시간이나 노동력의 평균 재생산비용에 따라서 노동가치계산을 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분배는 자본주의적 법적 평등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평등한 척도인 노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실적에 따른 분배를 말하고 있다. 한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서 동일한 시간에 더 많은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 노동자는 결혼을 했고 다른 노동자는 미혼이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들이 동일한 노동실적을 보여 사회적 소비기금에서 동일한 몫을 받게 된다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사실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며 결국 더 부유해진다. 이와 같은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는 평등한 게 아니라 불평등해야만 한다. (Marx (1875, p.21)

개별적 재능, 능력, 근면, 가족상황 그리고 어린애들 수 등등이 맑스에 따르면 개별적 분배의 중요한 요소들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맑스는 자본일반의 분석에서 가치창조를 노동시간이라는 가치척도에 근거했지만 구체적 현실에서의 공정한 분배는 노동시간이라는 동등한 가치척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임금결정의 척도는 실적과 사회적 관계가 된다. 이와 같은 맑스의 분배방식과 공산주의적 사회의 보다 높은 형태의 분배모형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노동분업에 의한 개인의 노예적 종속이 사라져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간의 대립이 사라지고, 노동이 삶의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일차적 삶의 욕구가 돼버린,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과 함께 그들의 생산력이 성장해서 모든 조합주의적 부의 원천이 완전히 가동되는 그런 공산주의적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분배원칙,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분배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Marx(1875, p.21) 재화의 부족이 없어지고 노동이 즐거움이 되고 잉여가 넘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

의 욕망에 따른- 자신의 객관적 재생산요구에 따른-분배가 가능해 진다. 여기서 업적이라는 척도는 사라진다. 상품생산의 종결과 함께 대안적인 분배방식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IV. 맑스의 사회적 필요노동에 대한 라살레의 왜곡된 수용

맑스는 자신의 가치론에 대한 라살레의 오해와 왜곡에 직면해서 앞장에서 밝힌바와 같이 다시 한번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성격의 잉여가치론과 자본주의적 상품경제에서 분배를 위한 가치계산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그것은 라살레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맑스는 잉여가치론의 추상적이고 사회적 성격에 대한 개념이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서 오해되고 왜곡되는 현실을 라살레에 대한 비판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다. 라살레가 맑스의 가치론을 오해하고 왜곡한데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하지만 독일 사민당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주의개념에 있어서나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비판에 있어서 맑스와 라살레 간의 상이한 가치이론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맑스의 추상적이고 사회적 성격을 지닌 잉여가치론과 노동가치론이 1867년 『자본론』 1권을 통해 발표된 이래 그것이 구체적이고 분배적인 가치계산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된 것도 여기에서 그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가치론에 대한 차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가치의 유일한 원천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Gesellschaftlich Notwendige Arbeit)”의 개념 파악에서 나타나는 차이에서 연유한다.

맑스의 사회적 필요노동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평균 노동속련도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정상적인 생산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노동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반면, 라살레의 개념 속에는 사회적 수요의 실질적인 수량에 대한 적응이라는 함목적성이 새로운 요소로 포함돼 있다.

라살레에 따르면 노동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 형성적이 되는 것이지, 맑스의 주장처럼 단지 정상적인 생산관계와 평균적인 노동 강도와 속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은 사회적 수요의 일정한 양에 상응해야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함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노동” 개념에 대한 두 사람의 상이한 파악은 필연적으로 두 사람의 상이한 경제이론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사회적 필요노동이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동 그 자체가 모든 가치의 원천이라는 맑스의 가치이론은 필연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노동자뿐이며 결과적으로 기업가의 이윤은 노동자의 착취에서 나온다는 것이 된다. 노동의 합목적성을 가치의 원천과 크기로 보고 있는 라살레의 가치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합목적성의 창조자로서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가가 된다. 기업가는 경제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생산의 종류와 크기를 결정한다. 그들은 죽은 노동을 합목적적이고 가치창출적인 노동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임금노동자는 단지 기업가의 수중에 있는 도구, 즉 생명이 있는 인간적인 도구일 뿐이다. 공장의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는 기계 옆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노동 도구 이상의 것이 아닌 것이다.

프란츠 메링(Franz Mehring(1879, p. 291)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라살레는 모든 가치의 원천이 노동 그 자체라기보다는 합목적적인 노동이라고 보고 있다. 맑스의 가치이론과 잉여가치론 등을 포함한 전체 맑스 경제학 체계를 뒤엎게 되는 이 같은 라살레의 결론은 맑스와 라살레의 가치론의 보다 큰 근원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라살레 자신은 이러한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맑스는 즉각적으로 그 차이를 발견해서 라살레를 논박했던 것이다.

맑스는 『자본론』 1권에서 상품의 가치 속에 체화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⁸⁾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일정한 생산조건과 사회적 평균수준의 노동의 숙련 및 강도를 가지고 어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독자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영국에서는 증기직

8) Marx, K., *Das Kapital*. I, MEW. 23Bd. p. 53: Gesellschaftlich notwendige Arbeitszeit ist Arbeitszeit, erheischt, um irgendeinen Gebrauchtwert mit den vorhandenen gesellschaftlich-normalen Produktionsbedingungen und dem gesellschaftlichen Durchschnittsgrad von Geschick und Intensität der Arbeit darzustellen.

기가 도입된 이후 일정량의 실을 직물로 전환시키는 데 그전에 비해 약 절반의 노동만을 필요로 하였다. 증기직기가 도입된 후에도 영국의 수공업들은 이러한 전환에 종전과 같은 노동시간을 소비하였으나, 이제는 그의 개별노동 1시간의 생산물은 1/2시간의 사회적 노동밖에 대표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가치는 그전 가치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맑스에 있어서 상품의 가치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가치의 생산에 투입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혹은 사회적 필요노동의 양인 것이다. (Marx (1978, p. 54)

반면 라살레는 자신의 사회적 필요노동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Bernstein (1893, Bd. III, p. 162)⁹⁾: “만약 어떤 사회에서 1백만 엘레(독일의 옛 치수: 1 엘레는 약 55-85cm)의 비단이 필요한데 기업들이 5백만 엘레의 비단을 생산했다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개별적 노동시간을 낭비적으로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비단상품 속에 체화된 사회적 노동시간은 증가하지 않는다. 비단 1 엘레의 가치는 최소한 1/5로 하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단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한 모든 개인들의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투하)된 노동의 4/5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살레는 가치를 결정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개념을 맑스와 달리 이해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노동은 작업이며 또한 운동이다. 모든 운동의 양은 시간이다. 모든 가치를 노동의 양으로 분해하고 다시 노동시간으로 분해한 것은 리카도의 뛰어난 업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모든 가치는 생산물의 제조에 필요한 노동시간으로 변한다고 보고 있다. (Bernstein (1893, pp. 158-159) 이것이 라살레의 가치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적 평균노동시간으로서만이 노동시간이 가치결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은 라살레에게는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라살레가 노동가치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게으름이나 미숙련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보다 진지한 성질의 것이었다. 그는 어떤 새로운 발명이나 개선된 생산방법을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의 현저한 감소가 일어나면, 동일한 종류의 총재고생산물은 동일하게 가격인하를 감수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로 노동가치론에 이의를 제기한 점이었다. 어떤 노동생산물속에 어느 시점

9) 라살레의 *Herr Bastiat-Schulze von Delitzsch, der ökonomische julian: Kapital und Arbeit*, Berlin 1864에 수록된 부분임.

까지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됐던 노동량 이하로, 즉 비용가격 이하로 상품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생산자들은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생산물 제조에 필요한 정상적인 노동시간(비용가격)이 그 상품가치의 척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라살레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어떤 시기에 사회의 기호와 욕망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면 그때까지의 기호와 욕망에 상응했던 생산물들은 비록 정상적이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이 그 속에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돼버린다. 또 그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바와 같이 어떤 재화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재화에 대한 수요나 필요노동량이 감소되지 않았는데 모든 생산물 가격이 비용가격 이하로 하락해 그 생산물 속에 고정된 필요노동량의 상당부분이 쓸모없이 되버린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생산물 속에 고정된 노동량이 가치의 척도라는 원리를 고수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라고 라살레는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회적 필요노동”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있어서 맑스는 일정량의 어떤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의 최소치를 사회적 필요노동 혹은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라살레는 시장의 총수요를 만족시키는 노동의 극대치를 말하고 있다. 맑스의 경우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변동을 통해서 변동하는데, 라살레의 경우는 시장수요와의 관계가 변하면 동일한 노동력에서도 상품의 가치가 변하게 된다.

라살레는 노동이 개인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한에서만, 다시 말해서 사회의 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한에서만 가치형성적인 것으로 인정한다. 라살레에게 가치형성적인 노동의 기준은 그 노동의 합목적성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모든 가치형성적인 노동의 필요조건은 그 노동의 합목적성이라는 라살레의 주장은 맑스의 가치론에 완전히 새로운 요소, 즉 변동적인 사회적 수요라는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맑스주의 가치론에 이러한 요소가 도입되면 맑스주의 학설의 모든 결정적이고 특징적인 것들,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해체돼 버린다. 즉 사회의 변동하는 수요에 알맞게 노동을 선도하는 사람인 기업가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무위도식

자들이 아니고 노동하는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치창출에 거대한 몫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일이고 사회의 목적에 맞추는 것은 기업가의 일이기 때문에 노동자나 기업가 모두가 장기적으로는 가치형성의 두 개의 동등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Mehring (1879, p292)

이렇게 되면 맑스의 가치론과 잉여가치론 모두가 흔들리게 된다. 노동의 합목적성을 제외하게 되면 노동 그 자체로는 어떤 가치도 창출하지 못하며, 생산의 목적 결정 속에서 존재하는 기업가의 노동이 가치형성의 불가결의 요인을 형성하게 된다. 기업이익은 결코 노동자의 착취에 근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기업가의 가치형성적인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노동과정의 생산물 중에서 기업가에 의해서 벌어들이는 몫이 되는 것이다.

맑스 가치론에 관한 이와 같은 라살레의 오해는 맑스와 라살레 간에 존재하는 극심한 세계관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 헤겔 법철학적(관념론적)인 세계관과 경제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의 차이이다. 라살레는 맑스의 가치론에서 자신의 법철학적 세계관의 입맛에 맞는 것만을 취했다. 그는 가치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시간은 노동의 완전한 수익을 노동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의 공동생산을 필요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Mehring (1879, p. 101) 그에 반해 그는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간의 차이를 완전히 간과했다.

맑스의 노동가치론에 대한 결정적 공헌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서 관찰된 노동(자본주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임노동)이라는 것을 최초로 지적했다는 데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는 상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상품의 이중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논리적 귀결로 모든 상품 속에 체화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맑스의 가치론에 대해 라살레는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으로부터 배웠지만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라살레가 맑스의 가치론을 오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가 가치형성적인 노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의 차이에 있었던 것 같다. 맑스가 가치형성적인 노동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라는 개별상품의 기능분석에서부터 출발한 것과는 달리 라살레는 인류사회의 두개의 상이한 시기구분으로

부터 출발했다. 즉 단순히 사용가치만이 생산되는, 다시 말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생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와 단순히 교환가치만이 생산되는 시기로 구분해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생산물, 즉 사용가치만을 생산하는 시기에는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노동은 개별적 노동이며, 생산물속에 들어간 노동시간은 개별적 노동시간이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지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는 일년 동안에 수백만 개의 편을 생산 한다; 나는 교환가치를 창출하며 모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환가치를 창출하고 있어서 그들이 창출한 교환가치들 속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의 욕망이 재생산된다. (Bernstein (1893, Bd. III, p. 159) 그 결과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은 더 이상 개별적인 노동이 아니며, 모든 개인들의 개별적인 노동, 즉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 속에 체화된 노동시간은 개별적인 노동시간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시간이다. (Mehring (1893, Bd. III, p. 160)

사실 라살레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노동 간의 차이를 구분했다.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개별적인 노동이고 그 속에 투입된 노동시간은 개별적인 노동시간이라고 했고,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이고 그 속에 투입된 노동시간은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시간이라고 했다.

라살레는 모든 상품이 동시에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고 있다는 상품의 이중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 상품 안에 개별적인 노동과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라살레에 의하면 오늘날의 생산물 속에 포함된 노동은 일반적 사회적 노동일뿐이다. 그러나 맑스는 당대의 모든 인간노동을 개별적 노동과 일반적 사회적 노동이라는 이중적 관점에서 관찰했다.

한편 라살레는 모든 교환가치가 교환가치일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사용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생산하는 교환가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용가치로, 즉 유용한 물건으로 전환될 때만 교환가치인 것이다”(Bernstein (1893, Bd. III, p. 159)

이렇게 해서 라살레는 또 하나의 오류에 빠졌다. 교환가치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이 마치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 되는 것처럼 잘못된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다.

맑스에 있어서는 교환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은 그것이 무엇보다 추상적인 인간노동일 때만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라살레는 맑스로부터 가치형성적인 노동은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이라는 개념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외적 형태만을 물려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라살레가 정의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은 맑스가 정의하고 있는 상품 속에 포함돼 있는 추상적 인간노동이 아니라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모든 개인들의 실질적인 개별노동이기 때문이다. (Bernstein(1893, Bd. III, p.160)

이 같은 라살레의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에 관한 정의는 맑스의 정의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 내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인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요특징은 라살레에 따르더라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노동인 것이지 결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노동이 아닌 것이다.

가치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노동에 관한 라살레의 정의 속에 나타난 모순은 결코 우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라살레가 모든 상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이중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이중성에 대한 간과와 함께 라살레는 가치를 형성하는 본질의 성격도 오해를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라살레는 자신이 맑스의 가치론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V. 맑스와 라살레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와 가치형성

자본이 저축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는 Schulze-Delitzsch에 대한 논박에서 라살레는 자본형성은 국민경제적 의미에서나 사경제적 의미에서나 저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는 국민경제적 자본의 유일한 원천은 생산이며 (Bernstein(1893, Bd. III, p. 101) 사적자본은 타인의 노동소득을 축적함으로써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자본형성은 저축이 아니라 탈취 혹은 착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Bernstein(1893, Bd. III, p. 106) 라살레는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두개의 예를 들고 있다. (Bernstein (1893, Bd. III, pp. 116-118)

“내가 100,000탈러 (Taler: 그 당시 독일의 화폐단위)를 주고 토지를 구입해서 매년 거기서 5%의 수입이 나오지만 전부 지출하고도 모자라서 매년 2,000탈러씩을 초과지출해서 빚이 저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10년 뒤에 그 토지를 팔았는데 그동안 곡물가격이 오른 결과든 대지가격 상승의 결과든 토지가격이 상승해서 200,000탈러를 받게 됐다. 나는 이 돈으로 지난 10년 동안 낭비적 지출결과로 발생한 20,000탈러의 빚을 갚고도 80,000탈러의 새로운 자본을 갖게 된다. 이 80,000탈러의 새로운 자본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적 관계 (Gesellschaftliche Zusammenhänge)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동일한 토지면적에서 인구가 조밀하게 증가함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나의 노동이나 저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이유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혹은” 두 번째 경우로 내가 Köln-Mindener 철도회사 주식에 액면가격으로 100,000탈러를 투자했는데 매년 이 투자자본에서 처음에는 5%, 그다음에는 8%, 10%, 12%, 13% 씩 배당을 받았는데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지출해버렸다. 그런데 이 주식이 175로 올랐을 때 주식을 팔았더니 75,000탈러의 새로운 자본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나는 한번도 내 배당소득에서 한 푼도 모으거나 저축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본이 생긴 것이다. 이 새로운 자본이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지요. Schulze 씨!”

이상의 예에서 보면 사회적 관계가 가치형성과 자본형성의 실질적인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것은 라살레의 노동가치론 전체를 파기시키는 것이다. 노동이외에 가치형성의 요소, 즉 사회적 관계라는 요소를 갖기 때문이다. 라살레의 이 예는 자본의 성립이 저축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생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본이 성립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와는 모순 되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가 교환가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는 분배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치 형성적 요소도 된다.

그런데 만일 가치의 유일한 요소는 인간노동이라고 가정한다면 사회적 관계는 분배적 요소로서만 작용할 뿐, 즉 가격에 대해서만 결정적으로 작용할 뿐 가치에 대

해서는 작용할 수가 없다. 라살레는 사회적 관계가 가치상승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모른 채 할 수도 없었고, 다른 한편 노동가치론을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을 통해서만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봉착했던 것 같다.

맑스의 경우는 노동가치론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로 한 상품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상승한 가치는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가상의 가치, 혹은 환상의 가치(fiktiver, illusorischer Wert)라는 것을 증명했다. 실질적인 자본과는 무관한 기존의 이자율에 근거해서 계산된 가상의 자본이라는 것이다. (Marx Engels Werke (1978, Bd. 25, p. 484)

라살레가 사회적 관계가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본 것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가치를 상승시켰는가, 즉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가상적인 가치의 상승이 있었을 뿐임을 그는 파악하지 못했다. 맑스의 경제적 의미에서 보면 결국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분배적 요소일 뿐이다. 한 나라에서 기존의 가치가 한 자본가의 수중에서 다른 자본가의 수중으로 새롭게 배분되는 데 사회적 관계가 공헌하고 있다는 의미다.

VI. 결론

맑스와 라살레간의 투쟁 혹은 맑스와 독일사회민주당간의 투쟁 속에서 보면 1875년 맑스의 고타강령에 대한 비판과 맑스의 차별화된 가치와 분배학설이 고타전당대회 대표자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비판이 겨냥하고 있는 당시의 당지도자들(Brake, Geib, Auer, Bebel, Liebknecht)은 가치학설이나 잉여가치학설에 관한, 혹은 노동소득의 정당한 분배에 관한 이론적 논쟁도 하지 않았으며 라살레에 대한 맑스의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전략 비판도 존중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맑스의 이름이 사민당 전당대회장에서 단 한번도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을 입증해 준다.

Franz Mehring에 의하면 맑스와 엥겔스는 그 당시 사민당의 상황을 잘 못 알고 있었다. 맑스는 Eisenacher파¹⁰⁾들이 이론적으로 우세하다고 과대평가하면서 라살레파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다. (Bernstein (1896/97, p. 466) 그 원인을

메링은 맑스가 독일노동자들, 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독일의 사회적 관계들과 직접적인 연결이나 의사소통이 매우 적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Mehring(1879, p. 290) 맑스는 아이제나하파의 기관지 Volksstaat(인민국가)』도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당내 분파 속에서 수많은 절충주의적 사회주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살레파의 기관지 Neue Sozial-Demokraten(신사회민주주의자들)도 맑스는 전혀 읽지를 않았다. 라살레파에 대해 아는 것은 그나마 가끔 읽어본 Volksstaat에 모사된 그런 인상들 뿐 이었다. (Mehring(1879, p. 291)

베른슈타인에 의하면 리프크네히트에 의해 작성된 최초의 고타강령초안은 통합협상에서 유일한 토론 자료였다고 한다. 초안의 어떤 점도 의견 차이를 나타낸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Bernstein(1896/97, pp. 467-468) 당이 라살레파의 주장에 속아 넘어갔다는 맑스와 엥겔스의 비난은 리프크네히트에게는 황당했을 것이다. 베른슈타인에 의하면 아직 아이제나하파들에게도 고유한 과학적 이론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과 라살레적 기초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것이었다. (Bebel(1965, p. 524) 1891년 엥겔스에 의해서 Neue Zeit(신시대)』에 발표될 때까지 맑스의 고타강령비판은 유보돼 있었다.

종합해 보면 맑스의 가치이론은 독일사회주의정당의 과학적 근거로서 그리고 이론적이고 경제적인 논증으로서 실천적이고 정치적인 방향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도 못했다¹¹⁾. 1863년부터 1875년까지 독일사민당에서 나온 프롤레타리아 경제학에 대한 언급들은 라살레적 사상에서 출발한 것들이

10) 1869년8월7일-9일에 라살레파의 반대진영에 속한 베벨과 리프크네히트에 의해 동부독일 아이제나하에서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당(Sozialdemokratische Arbeiterpartei)”을 창설한 사람들을 아이제나하파라고 부른다. 그 뒤 1875년 5월22일-27일에 두 파가 통합협상을 통해 고타에서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Sozialistische Arbeiterpartei Deutschlands)”으로 통합이 된다.

11) 독일사회민주당은 1891년 Erfurt 당 강령에서 맑스주의적 가치론의 수용이 있긴 했으나 세계1차대전까지 당의 정책과 실천에서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 창당된 사민당의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에서는 공식적으로 맑스주의적 조항들을 삭제했다. 맑스주의와의 작별을 고한 것이다. 그 결과 고데스베르크강령과 함께 독일 사민당은 주요생산수단의 국유화요구 뿐만 아니라 사회화요구 까지도 포기했다. 맑스주의적 사상과 사회주의적 목적설정의 포기과 함께 독일 사민당은 라살레적 노동자정당, 노동자 계급정당에서조차도 벗어난 국민정당(Volkspartei)으로 그 성격이 변화됐다. 이제 맑스주의적인 것도 라살레적인 요소도 제거된 정당이 된 것이다.

다. 맑스가 자본일반분석에서 나온 가치학설과 함께 구체적 자본의 분석에서 차별화된 가치와 분배계산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의 지도부 중에서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자본론』 제2권과 제3권이 아직 출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일반의 분석에서 본 단순화된 가치고찰을 맑스가 고타강령 비판에 나와 있는 가치계산의 방식으로 대체하고자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라살레가 주장한 “완전한 노동소득”에 대한 권리의 단순화된 고찰을 맑스가 차별화된 가치론과 분배론으로 대체하고자 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맑스 전집이 출판될 때까지 『자본론』 제1권의 추상적 가치이론만이 맑스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에서도 맑스의 저작들은 반향이 거의 없었다. 그 이유를 메링은 자본론의 난해한 서술방식에서 찾고 있다. 맑스의 저작들과는 대조적으로 라살레의 저작들은 대단히 평이한 문체로 돼 있어서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었다는 것이다. 베벨이 1873년 엥겔스에게 쓴 편지를 보면 “라살레의 저작들은 대중적인 언어를 통해서 대중들의 사회주의관의 근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독일에 있는 어떤 사회주의적 문헌들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확산돼 있다. 라살레는 엄청난 대중성을 갖고 있다.”(Bebel(1965)고 쓰여 있다.

베벨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공산당선언과 기타의 맑스-엥겔스 문헌들이 당에 알려진 것은 1860년대 말부터 1870년대 초였다. 나 자신도 당시 사회민주주의자가 된 대다수의 사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라살레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맑스를 알게 됐다. 맑스와 엥겔스의 저작을 알기 전에 우리들 손에는 라살레의 저작들이 있었다”(Bebel(1964, p. 131)고 한다.

후에 당의 맑스주의이론가로 이름을 날린 Karl Kautsky의 경우도 1880년대 초에 야 비로소 베른슈타인의 지도하에 엥겔스의 Anti-Dühring(반듀링톤)을 공부하면서 맑스주의에 접근하게 됐다. (Bernstein(1896/97, p. 471)

1878년 사회주의자법¹²⁾이 실시될 때까지 당내에서 이론가로 알려졌던 Liebknecht경우도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그 당시 카우츠키는 리프크네히트를 맑스주의의 선포자로 보았지만(Kautsky(1960, p. 374) 사실 리프크네히트는 원래 이

12) 1878년 비스마르크가 통합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사회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으로 동년 7월2일 제국의회에서 통과되었다가 1890년 10월1일에 폐기되었다.

론에 거부감을 가졌고 투쟁을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실용주의자이었기 때문에 이론 연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였다. 라살레가 죽고 난 뒤에도 독일노동운동에서 사회주의 경제이론은 맑스와 엥겔스가 아닌 Eugen Dühring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베벨까지도 듀링을 위대한 사회주의적 사상가로 칭송했다. 이와 같은 당의 기본적인 이론적 불안정성은 1877/78년에 엥겔스가 『자본론』을 쉽고 간략하게 축약한 반듀링론을 출판할 때까지 지속됐다.

『자본론』 1권의 3판과 4판은 1883년과 1890년에 나왔으며 『자본론』 2권은 1885년에 엥겔스에 의해서 출판됐다. 『자본론』 3권은 1894년에 나왔으니 1894년 이후에야 비로소 맑스의 경제이론이 전체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맑스의 전체 가치이론이 분석되고 비판되기 시작한 것은 1894년 이후였다.

두 사람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세계관의 차이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맑스는 유물론자로서 경제학 연구를 통해 사회의 경제생활의 내적 법칙들을 객관적으로 찾아내려고 노력한 반면, 관념론자로서 라살레는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실현이라는 주관적이고 관념론적인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라살레에게 모든 경제이론은 이와 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논증일 뿐이었다. 라살레는 경제적 법칙 자체를 자신의 이상에 상응하게 재구성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경제적 법칙을 따랐던 것이다.

맑스에게 가치론이 전체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수수께끼를 푸는 수단이며, 자본주의 사회를 공산주의적 사회로 변혁시키는 세계사적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었다면 라살레는 노동가치론을 사유재산 폐지의 필요성과 새로운 노동에 근거한 소유형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윤리적 조건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라살레에게는 실질적으로 고찰의 대상이 가치개념의 형태였지 그것의 내용이 아니었다. 결국 그의 관념론적 세계관과 가치론에 대한 관념론적 파악이 맑스의 가치론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도록 했던 것 같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핵심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노동가치론과 잉여가치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라살레와 같은 우를 범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고 있다¹³⁾. 그와 같은 맑스 가치론에 대한 오해와 곡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맑스

13) 이러한 예는 맑스의 가치전형문제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격으로 전형되어야 할 가치는 처음부터 가격을 가치로 전형시키는 모리시마-세통류의 역전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Seton, 1957, Morishima, 1973) 또한 맑스체제의 종결을 선언한 뵘-바베르크도 가치는

의 가치론이 순수경제이론적 이해를 넘어서 유물변증법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품의 이중성, 노동의 이중성, 상품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회적 필요노동, 노동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등등과 같은 중요한 맑스주의 가치론적 범주들은 유물변증법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라살레의 경우를 통해서 좀더 분명하게 확인했다.

■ 참 고 문 헌

1. MEW(Marx Engels Werke), Band 13, 23. 25, Dietz Verlag Berlin, 1978.
2. MEGA(Marx Engels Gesamt-Ausgabe), II/5. Dietz Verlag Berlin, 1983.
3. Bebel, A., Briefwechsel mit Engels, W. Blumenberg(edit.), Gravenhagen, 1965.
4. Bebel, A., Aus meinem Leben, 4. Aufl. Dietz Verlag, Berlin, 1964.
5. Bernstein, E. (eds), "Ferdinand Lassalles Reden und Schriften," Berlin, 3 Bde. Verlag der Expedition des "Vorwärts" 1893.
6. Bernstein, E., Zur Vorgeschichte der Gothaer Programm, in: Die Neue Zeit, XV., 1, 1896/97.
7. Bernstein, E.,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Verlag J.H.W. Dietz Nachf. GmbH, 1899, 1977.
8. Himmelmann, G., Arbeitswert, Mehrwert und Verteilung, Westdeutsche Verlag, 1974.
9. Jenaczek, F(edit.), "Ferdinand Lassalles Reden und Schriften," dtv, München, 1970.
10. Kautsky, B. (edit.), Karl Kautsky, Erinnerungen und Erörterungen, Gravenhagen, 1960.
11. Marx, K.,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Rohentwurf(1857-1858), Dietz Verlag, Berlin, 1974.
12. Marx, K., Randglossen zum Programm der deutschen Arbeiterpartei, in: MEW, Bd. 19, Dietz Verlag, Berlin, 1875.
13. Marx, K/F. Engels, Briefwechsel zwischen Marx und Engels, Jan. 1860 bis Sept. 1864, MEW, Bd. 30, Dietz Verlag, Berlin, 1978.

창출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최종소비자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다. (Sweezy, 1975) 그는 시장에서 수요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있는 가치의 크기만을 강조한 나머지 가치 자체가 생성되어지고 있는 노동과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특히 슈페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윤은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서 창출되어지는 것이지 노동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라살레와 유사한 현상적 오도에 빠진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다. (Schumpeter, 1911년초판/1934년4판)

14. Mehring, F., Geschicht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2 Bde. 3. Aufl. T. Höhle und J. Schleifstein (eds), Berlin, 1879, 1960.
15. Morishima, M., Marx's Econo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16. Müller, M., Auf dem Wege zum >>Kapital<<, deb, 1978.
17. Rosdolsky, R.,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Marxschen >Kapital<, Band I, Band II. Europäische Verlagsanstalt Frankfurt, 1968.
18. Rubel, M., Marx-Chronik, dtv, 1983.
19. Uexküll, G., Ferdinand Lassalle, Rowohlt, 1974.
20. Schumpeter, J.,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uncker & Humblot Berlin, 1911/1934.
21. Schwarz, W., Die Strukturgeschichte des Marxschen Hauptwerkes, ded, 1978.
22. Seton, F., "The Transformation Problem,"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4, 1957, pp. 149-60.
23. Sieber, R./H. Richter, Die Herausbildung der Marxistischen politischen Ökonomie, Dietz Verlag, Berlin, 1969.
24. Sweezy, P. (ed.), Karl Marx and the Close of His System, New York, Kelley, 1966.
25. Tuchscheerer, W., Bevor "Das Kapital" entstand- Die Herausbildung und Entwicklung der ökonomischen Theorie von Karl Marx in der Zeit von 1843 bis 1858, Akademie Verlag, Berlin, 1975.

Marx and Lassalle -The Difference of the Theory of Value in Marx and Lassalle-

Young-Ho Park*

Abstract

Here I intend to examine the problem posed by the misinterpretation and misunderstanding in Lassalle's acceptance of the value theory of Marx. Lassalle's unique *Arbeitsertag* is examined through the critics of Marx.

In the first preface of *Capital* Marx states that Lassalle never understood his theory of value in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but only misunderstood.

But Marx himself did not mention concretely what and where is Lassalle's misunderstanding. Because of this fact, people believe only at the beginning and then ignore that Lassalle misunderstood Marx's value theory. Also after publishing of *Capital* I there were many people to confirm without hesitation that Lassalle's value theory is fully identified with Marx's one. It takes long time to know the fact that Lassalle not only misunderstood Marx's value theory, but also upside down transformed. Lassalle's value theory, which he has put forward in his book "Schulze-Delitzsch", is not only not identified with Marx's one, but also quite the opposite.

In this paper the attention focuses exclusively on Lassalle's misinterpretation and misunderstanding of Marx's value theory.

Key Words: labour-returns(*arbeitsertag*), surplus value, social necessary labour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Hanshin University